

세계정당인들과 함께한 임핑나이너스터 컨트리 클럽

임핑나이너스터 컨트리 클럽

- 광주 - 동광명IC 구간 광복 동원로 관동
- (명동출발) 10월 10일 10시 30분 개시
- 인천시 9월 이후 출발요금정산제 실시
- 예약 : www.hpdyashy.co.kr 0801 320-7700

장애인 올림픽 출전 광주 출신 선수들 출사표

“‘베이징 감동’ 우리가 잇는다”

“베이징의 감동을 장애인 올림픽으로 잇는다.” 제13회 베이징장애인올림픽에 광주 출신 선수 6명이 장애를 넘어서는 ‘인간승리 금메달’에 도전한다. 2008베이징장애인올림픽에 출전하는 광주출신 선수들은 탁구, 양궁 2종목에 6명, 금메달이 가장 유력한 김공룡(40·서구 금호동·지체1급) 선수는 휠체어 탁구 2체급(장애정도에 따라 1체급~5체급으로 구분)에 출전, 금메달을 노린다.

김공룡(탁구)·김란숙(양궁) 등 2개 종목 6명 6일부터 개막... 한국 금 13개, 14위 목표

대학을 졸업하고 건설회사에 입사한 김 선수는 21세 때 건설현장에서 추락, 목부위를 심하게 다쳐 생명을 건진 것만 해도 다행이라 여겼을 정도였다. 특히 건강에는 자신이 있었던 김 선수는 자신에게 닥친 장애를 인정하지 못하고 방황하기도 했으나 주변의 권유로 광주장애인 복지관에서 탁구를 접하면서 새로운 삶을 열었다.

27세 때 6년간의 지루한 방황을 끝낸 김 선수는 탁구와 함께 새로운 인생을 펼쳐나갔다.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다는 각오로 팔방울을 흘렸던 그는 마침내 지난 2004년 아테네올림픽 단체전 금, 개인전 은메달, 지난해 아르헨티나장애인탁구대회 2관왕 등을 차지해 휠체어 탁구 2체급에서는 최고의 선수로 꼽힌다.

김 선수는 두 손이 부자연스러운데다 손가락을 움직이지 못해 탁구채를 붕대로 감고 경기에 임하는 장애를 이겨내고 희망의 메시지를 장애인들에게 전하고 있다. 김 선수는 “지난해 개인전에서 은메달에 머물렀는데 중국 선수만 넘으면 금메달도 가능하지 않겠나”고 강한 의욕을 보였다.

김공룡 선수 못지 않게 휠체어 탁구계에 이름난 김영건(34·남구 주월동·지체1급) 선수도 이번 올림픽 휠체어 탁구 3체급에서 역시 금메달을 기대하고 있다.

김영건 선수는 고교 3학년 때 놀러다가 추락, 허리를 다쳐서 하반신을 못쓰게 됐다. 하지만 김 선수는 다행히 장애인 체육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장애를 겪은지 3년만에 라켓을 잡고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지난 2004년 아테네 장애인올림픽



〈김 공 룡〉



〈김 영 건〉



〈조 재 관〉



〈정 지 한〉



〈김 란 숙〉



〈김 흥 규〉

에서 개인전과, 단체전 금메달 2관왕에 올라 인생 최고의 황금기를 맞기도 했다.

이외에 휠체어 탁구 1체급 단체전에서 금을 노리고 있는 조재관(31·북구 동림동·지체1급) 선수는 경주마비로 휠체어에 의지하고 있다. 지난 2006장애인아시아권



광주 출신 6명의 장애인 선수들이 6일부터 열리는 2008 베이징 장애인올림픽에서 장애를 넘어서는 ‘인간승리 금메달’에 도전한다. 양궁 대표로 출전하는 광주 출신 김란숙(오른쪽) 선수가 지난 2007년 8월 충북 예천 김수녕양궁장에서 열린 세계장애인 양궁선수권대회에서 경기를 벌이고 있다.

임에서 단체전 금메달을 따낸 실력과, 교통사고로 허리를 다친 정지한(여·44·서구 쌍촌동) 선수는 고향은 서울이지만 탁구선수로 활동하기 위해 광주에 내려올 정도로 탁구와 함께 열정적인 삶을 살고 있다.

운동경력은 3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지난해 아시아장애인탁구 선수권 개인 은, 아르헨티나장애인탁구대회 개인단체 금메달을 따냈다.

어렸을적부터 소아마비로 어려움을 겪었던 김란숙(여·41·북구 오치동·지체2급) 선수는 한국 시공의 명성을 재확인하겠다는 각오로 양궁에 출전한다. 김 선수는 지난 세계장애인양궁선수권대회에서 개인전 동메달을 따낸 유망주. 운동경력 4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젊은 선수 못지 않은 열정과 노력으로 금메달을 꿈꾸고 있다.

교통사고로 허리를 다쳐 하반신을 사용하지 못하는 김흥규(41·북구 용두동·지체1급) 선수는 운동을 시작하지 11년째. 양궁을 통해 역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김 선수는 지난해 세계장애인양궁선수권대회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따내는 등 기량이

급성장하고 있어 당일 컨디션에 따라 개인전에서 메달 색깔이 달라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지난달 30일 선수촌 입촌

오는 6일 개막하는 제13회 베이징장애인 올림픽에 참가하는 각국 선수단이 지난 달 30일 장애인 올림픽 선수촌에 처음으로 입주했다. 베이징에서 발행되는 신경보(新京報)는 이날 천즈리(陳至立) 선수장이 공식 개촌을 선언하고 중국 41개 대표단의 선발대 145명이 처음으로 입주했다고 보도했다.

공식 입촌이 시작된 이날 베이징 서우두 공화에는 57편의 항공기를 타고 독일과 일본, 스페인, 브라질 등 각국 선수단 2천158명이 도착해 선수촌 입촌 절차를 밟았다.

제13회 베이징장애인 올림픽은 6일 올림픽 주경기장인 나오차오(鳥巢)에서 개막해 17일까지 총 20개 종목, 295개 세부 종목의 메달을 놓고 4천99편의 선수단이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겨루게 된다.



박주영 佛 AS 모나코 입단

“박지성·이영표 선배들처럼 단계 밟아 빅리그 가고 싶어”

“박지성이나 이영표 선배처럼 단계를 밟아 빅리그로 가고 싶습니다.”

프랑스 프로축구 리그1(1부리그) AS 모나코에 입단하기로 한 박주영(23·서울)이 지난달 31일 해외 진출과 관련한 심경을 밝혔다.

박주영은 AS모나코와 마무리 협상을 위해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면서 “선택과 걱정이 교차하지만 두렵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있다. 좋은 기회가 주어진 상황에서 꼭 좋은 결실을 얻고 싶다”고 말했다.

에이전트 및 FC서울 구단 관계자와 함께 입단과 관련한 세부 협상을 위해 이날 프랑스행 비행기를 탄 박주영은 “박지성(맨체스터 유나이티드)과 이영표(도르트문트)도 네덜란드 리그를 거쳐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 진출했다”며 “나 역시 프랑스에서 기반을 닦아 더 큰 무대 진출을 준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박주영의 유럽진출을 도운 한 관계자는 “이적료는 200만유로(한화 약32억원)로 결정됐고 연봉과 계약기간(3년 혹은 4년) 등 세부적인 부분에 대한 마지막 조율만 남았다”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에이전트가 AS모나코와 계약서 문구를 손질하는 사이 박주영은 구단 시설을 돌아보는 등 쉬다가 입단시에 참석한다”고 프랑스 도착 후의 일정을 알렸다.

박주영은 그동안 비밀리에 프랑스를 두 차례나 방문해 연봉 및 계약기간 외의 모든 협상은 끝낸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8월 중순 올림픽축구대표팀이 해산한 뒤 AS모나코의 요청으로 두번이나 프랑스에 가서 협상은 물론 자기공명촬영(MRI)을 포함한 신체검사까지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30일 강원도 하이원CC에서 끝난 하이원컵 챔피언십에서 함께 8연승을 거둔 서희경(오른쪽)을 신지애와 김하늘이 축하해 주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 올림픽 금 13개 비결은?

“인구 4천800만명에 불과한 대한민국이 베이징올림픽에서 무려 13개의 금메달을 획득한데는 분명히 비밀이 있다.”

홍콩의 시사주간지 ‘아주주간’은 지난달 31일 ‘한국 베이징올림픽에서 우뚝 솟은 비밀은?’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한국팀이 베이징올림픽에서 종합 7위를 달성한 비결을 나름대로 분석해 소개했다.

아주주간은 태권선수촌을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는 과학적인 훈련방법이 1차 ‘비밀병

기’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잡지는 남자수영 400m 자유형 종목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박태환 선수가 생리학과 스포츠학을 접목한 이른바 ‘한국식 스텝 테스트’ 훈련을 통해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한국이 ‘경기력향상연구금’ 등 올림픽에서 메달을 획득한 선수들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점도 베이징올림픽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밑거름이 됐다고 분석했다.

홍콩 언론 큰 관심 “과학적 훈련 한몫”

아울러 이 잡지는 올림픽이나 아시아게임 등에서 일정한 성적 이상을 거둔 남자선수들에게 현역복무 대신 체육분야 공익요원으로 편입될 수 있도록 하는 병역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점도 선수들의 사기를 높인 요인으로 꼽았다.

끝으로 아주주간은 한국국민의 열광적인 응원열기도 한국팀의 선전에 한몫을 했다고 전했다.

‘LPGA 영어 의무화’ 美 언론들 잇단 비판

미국여자프로골프협회(LPGA)의 소속 선수 ‘영어사용 의무화’ 방침에 대한 미국 주류언론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뉴욕 타임스에 이어 로스앤젤레스타임스는 지난달 29일 인터넷판 기사에서 리비 겔로웨이 LPGA 부위원장이 대부분의 외국 선수들이 영어를 잘한다고 말했지만 “이번 방침은 한국계 선수들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명한 인식이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이번 조치가 특정 집단을 겨냥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 문제라면서 지난 주 오리건 주 포틀랜드에서 열린 LPGA 투어 세이프웨이 클래식에서 한국 선수들을 다 모아놓고 이번 방침이 전달된 점을 지적했다.

신문은 LPGA가 이런 방침을 정한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면서 LPGA에는 한국 선수 45명을 포함해 26개국 121명의 외국선수들이 등록돼 있으며 이들이 투어를 선택해왔다고 전했다. 영어실력이 모자라는 선수들을 출전 금지시키는 것 보다 협회 차원에서 영어수업과 개인교사 고용, 언론인터뷰 훈련 등을 시작하는 것이 보다 좋은 해결책이라고 신문은 권고했다.

신문은 “PGA가 과연 최경주나 예두아르도 로메로(아르헨티나), 알헬 카브레라(아르헨티나) 같은 선수들을 출전명단에서 제외시키는 것을 상상할 수 있느냐”고 덧붙였다.

‘올림픽 3관왕’ 볼트 가볍게 우승

IAAF 골든리그 100m 9초83

남자 육상 100m 세계기록(9초69) 보유자 우사인 볼트(22·자메이카·사진)가 베이징 올림픽이 끝난 뒤 처음으로 참가한 육상 대회에서 가볍게 우승했다.

볼트는 지난달 30일(한국시간) 스위스 취리히에서 열린 국제육상경기연맹(IAAF) 벨트클라세 골든리그 100m 결승에서 9초83을 찍어 올림픽 동메달리스트 윌터 덕스(미국·

9초99), 리처드 톰슨(트리니다드 토바고·10초09)을 제치고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다. 베이징올림픽 100m에서 9초69의 세계신기록으로 금메달을 목에 건 볼트는 200m와 400m계주에서도 각각 19초30, 37초10의 세계신기록으로 정상에 밟아 단거리 황제로 우뚝 섰다.

볼트는 그러나 이날 세계기록을 깨지 못해 조직위원회가 내건 신기록 포상금 5만달러와 2만7천달러 상당의 골든버는 받지 못했고 우승상금 1만6천달러만 챙겼다.



신지애 잇단 더블보기...8위 부진

서희경 생애 첫 우승

KLPGA 하이원컵 최종

서희경(22·하이트)이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역대 최고 상금이 걸린 하이원컵 SBS 챔피언십에서 생애 첫 우승을 차지했다.

서희경은 지난달 30일 강원도 정선 하이원골프장(파72·6천479야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날 후반에 크게 흔들려 타수를 줄이지 못했지만 사흘 연속 선두를 지킨 끝에 합계 8연승과 208타로 우승컵을 품에 안았다. 하지만 같은 챔피언십에 있던 ‘지존’ 신지

애(20·하이마트)는 역전의 명수답지 않게 같이 무너졌다. 전반에 1타를 줄이고 11번홀(파4)에서 버디를 잡아 추격을 벌이던 신지애는 14번홀(파5)에서 16번홀(파4)에서 두 차례나 이어지는 더블보기를 하며 우승권에서 멀어졌다. 신지애는 2연승과 214타로 공동 8위에 그쳤다.

한편 강국순은 지난달 31일 제주도 라온골프장(파72·7천186야드)에서 열린 한국프로골프 SBS 코리아투어 조니위키블투어 오픈 최종 라운드에서 2연승과 70타를 쳐 4라운드 합계 12연승과 276타로 정상에 올랐다. 2, 3라운드 선두를 달리는 이번을 연출했던 무명 주홍철은 1오버와 73타를 쳐 우승은 이뤄내지 못했지만 공동 2위를 차지했다.